

# 직업계고 졸업생 4명 중 1명 '6개월만에 퇴사'

### '유지취업률' 광주 77.3% 평균 이하... 전남 73.2% 하위권 학교·지역 사회,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맞춤 교육 고민해야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취업률'이 평균 이하이거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률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지취업률까지 바닥권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31일 '2020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동계조사 유지취업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은 각각 77.3%와 73.2%로 전국평균(77.3%)과 같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유지취업률은 77.3%였다. 4월1일 취업했다더라도 4명 중 1명꼴로 그만뒀다는 것이다. 전체 졸업자 기준으로 따지면 8만9998명 중 2만5231명(28%)만이 10월1일 취업 상태였다. 나머지는 진학했거나 취업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소재지별로 서울(81.7%) 대전(80.8%), 인천(79.6%), 경기(78.3%) 등 4개 시·도의 유지취업률이 평균보다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소재 학교의 유지취업률(79.3%)이 비광역시(75.7%)보다 3.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전남(73.2%)과 전북(72.1%) 등은 가장 낮은 유지취업률을 보였다.

학교 유형별 유지취업률을 살펴보면 마이스터고가 82.1%로 가장 높고 특성화고 76.6%, 일반고 직업만 74.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는 직업계고의 취업을 하락세는 물론 졸업자들이 취업하는 곳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실질적인 자료라며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직무교육이 가능한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고졸 인재의 취업과 사회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개소할 중앙취업지원센터

터와 각 시·도교육청의 연계를 통한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실습·기업현장교사 지원금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하락하고 그나마 취업한 곳에서도 6개월 이상 못버티는 현상이 수치로 확인됐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직업계고 인재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세월호 추모하듯... 완연한 봄날씨를 보인 지난 31일 광주시 광산구 선운지구 수변공원에 셋노란 유채꽃이 활짝 핀 가운데 시민들이 유채향을 맡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세월호 7주기

### 광주·전남 추모 열기 고조

#### 금남로 현수막·촛불문화제 등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광주·전남 곳곳에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세월호광주시민상추모모임'은 지난 31일 '세월호 추모 주간을 맞아 올해 추모 기본 방향을 '기억' '약속' '책임'에 맞추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민상추모모임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를 4월 한 달 동안 노란빛으로 물들인다. 상추모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현수막 200장을 5·18민주광장을 시작으로 전남여고와 충장파출소 일대에 걸쳐 내걸 예정이다. 현수막에는 신청자의 추모 문구 등이 담길다.

4월 14~17일에는 마을별로 촛불문화제를 열어 시민들과 세월호 참사 분위기를 나눈다. 참사 당일인 16일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광장 한편에는 무인 분향소를 운영한다.

목포에서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행사가 열린다. '세월호잊지않기 목포지역공동실천회'는 오는 10일 목포신항과 목포시 일원에서 '봄날의 약속' 행사를 연다. 단체는 세월호가 머물고 있는 목포신항으로 가는 길목인 고하대로 5Km 구간을 900여개의 대형 리본과 30여개의 현수막을 활용해 노란 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7주기 당일에는 목포역광장과 평화광장에서 거리 사진전과 노란 리본 만들기, SNS 릴레이 참여 촉구 캠페인 등도 벌인다.

광주YMCA도 청소년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파켓 캠페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1일 광주극장에서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당신의 사월'이 개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미안마 군정종식·민주회복” 전남대 행동연대 출범

### 오늘 11시 전남대 5·18광장... 5·18연구소, 교수회 등 9개 단체 참여

5·18민주화운동의 발원지인 전남대학교의 학내·외 단체들이 미안마 민주화운동을 위한 연대 활동에 들어간다.

전남대 관련 여러 단체들은 '미안마 군정종식과 민주회복을 위한 전남대 행동연대'를 결성하고, 미안마 국민에 대한 연대와 지지 활동에 나선다.

전남대 '행동연대'는 1일 오전 11시 학내 5·18광장에서 제 단체 대표와 회원, 학생, 시민들이 모여 미안마 군정종식과 민주회복을 위한 전남대 행동연대 출범식을 가진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규모는 간소화하고, 활동은 개인 단위 참여를 적

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동연대는 중앙도서관 별관 좌우에 미안마의 민주항쟁을 지지하는 높이 18m의 초대형 펼침막을 내걸고, 건물 앞에는 자유게시판을 설치해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이 직접 미안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포스트잇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범대 1호관 벽면에 그려진 대형 '광주민주항쟁도' 앞에도 포토 존을 설치하는 등 지지와 연대 활동의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이들을 배경으로 인증 샷을 찍어 개

인의 사회관계망(SNS)이나 행동연대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게재하면서 미안마 국민과 세계 시민에게 연대와 지지, 공감을 표명할 수 있다.

전남대 '행동연대'에는 5·18연구소, 교수회, 교수연구자협의회, 직원회, 공무원노조 지부, 대학노조 지부, 조교협의회, 총동창회, 민주동우회 등 전남대를 대표하는 9개 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전남대 행동연대는 "5·18민주항쟁의 발원지이자 5월운동의 역사적 공간이었던 전남대에서 미안마 국민의 희생과 군부의 만행을 막고 미안마의 민주회복을 위한 지지와 연대 활동에 돌입한다"며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11% 불과

### 송원초·대동고·대광여고·서진여고·송원고 '한 푼도 안내'

광주지역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 광주시 관내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납부기준액은 178억 9000여만원이고, 실제 납부액은 20억 7000여만원으로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11.6%였다. 학교별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초등학교 3.6%, 중학교 6.6%, 고등학교 13.6%였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의무적으로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이는 사학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비용

임에도 이것마저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들의 호주머니에 기대고 있다.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송원초, 광주대동고, 대광여고, 서진여고, 송원고 등 5개교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완납한 학교는 죽호학원 소속의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금파고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자산지점 | 062)222-1431